

# “새로운 각오로 조합원 위한 조합 만드는 데 최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조합 총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국토교통부 차종선 사무관님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님과 박종학 협회 고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여러분!

먼저 우리조합의 노동조합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74일간의 장기 파업을 일으켜 조합원사들께 많은 어려움과 업무불편을 끼치고, 조합의 신용도와 이미지 또한 크게 추락시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한 결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협상을 타결하고 사태를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조합은 노·사 모두가 하나되어 추락된 신용 회복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여러분!

우리조합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보증시장의 경쟁심화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보증센터 설립 및 사무소 폐지 등 슬림화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아울러 보증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실보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구조 다각화와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수익구조개선 TF와 보유공제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사업팀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보증시장 개방 등 더 큰 어려움에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도 높은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합의 임직원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이번 총회는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대의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대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 기 석

# “환골탈태 자세로 조합원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매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학 고문님과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여러분!

올해는 우리 조합이 설립된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조합은 기계설비업계의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기계설비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강력한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새로운 도전과 변화’ 등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슬림화된 조직 개편, 업무성과 평가제도 도입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조합원사들이 업무에 불편은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타 조합에 비해 낮은 생산성 구조의 우리조합은 개혁 등 체질개선을 해야만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직원들은 평균임금 9천 3백만원의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장기 파업으로 조합의 신용도와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그동안 파업 해결을 위해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회 등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해산’을 결정하는 등 벼랑 끝에 가셔야 극적으로 타결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업무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시·도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조합 운영위원님과 조합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은 파업 타결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감내하여 주신 조합원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 임직원 여러분!

술개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낡은 부리를 깨뜨리고, 딱딱한 발톱도 뽑고, 깃털도 뽑아버리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함으로써 ‘환골탈태’를 합니다.

조합 임직원 여러분도 ‘조합원사가 있어야 조합이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조합의 존재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조합은 진정한 환골탈태할 것이며 하락된 신용도와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조합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매진한다면 조합원사는 더욱 더 안정적인 금융기반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여러분!

우리 조합이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 최초로 도입한 보증센터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시켰으며 이밖에 부실보증 리스크 사전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수익성 극대화 등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으로 타 조합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합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사 여러분께서 주신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제조합 총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6. 11. 1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 상 일

#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1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지난 11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 박종학 협회 고문,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연구 원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관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17년 경영목표를 “열정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 구현”으로 정하고 △소통 강화를 통한 경영혁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업무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 가치증진 등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2017년도 예산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서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업무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 가치증진에 필요한 예산반영과 조합의 재무건

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긴축예산 편성을 기조로 △318억원의 수익목표 △38억원의 당기순이익 등을 목표로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 김기석 이사장 “새로운 각오로 조합원 위한 조합 구축에 최선”

이날 총회에서 김기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조합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조 조정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파업 후 노사 모두 하나가 되어 추락된 신용 회복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김기석 이사장은 “노사 모두가 하나되어 신용 회복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기석 이사장은 “우리조합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보증시장의 경쟁심화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 보증센터 설립, 사무소 폐지 등 슬림화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보증리스크 감소를 위해 부실보증 사전 차단 및 관리를 강화했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지급금을 감소시키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수익구조개선 TF와 보유 공제추진 TF를 통해 수익구조 다각화 및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석 이사장은 “보증시장 개방 등 다가올 어려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겠으니 대의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이상일 회장 “환골탈태의 자세로 뼈를 깎는 혁신 필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조합은 기계설비업계의 전문 보



이상일 회장은 “〈조합원사가 있어야 조합이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조합의 존재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강조했다

증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기계설비 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강력한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선택과 집중, 새로운 도전과 변화 등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일 회장은 “〈조합원사가 있어야 조합이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조합의 존재 이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조합원사를 위한 조합〉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조합은 진정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의 신용도 및 이미지 회복은 물론 안정적 기반에서 조합과 조합원사 모두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회장은 “우리 조합은 부실보증 리스크 사전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 수익성 극대화 등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으로 타 조합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신뢰와 믿음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